

1. 돈 앞에 선 그리스도인 : “돈, 축복인가 위험한 유혹인가?”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신앙인으로서 너무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반대로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현실을 외면하는 가식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돈의 무게와 영향력을 잘 알면서도, 신앙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늘 난감한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다고 할 수도 그렇다고 좋지 않다고 할 수도 없는 돈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성경이 완성된 경제 신학이나 구체적 돈 철학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보여주며, 우리가 돈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지혜롭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돈의 긍정적 측면입니다.

잠언 10:22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되나니, 근심이 그것과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재물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의 한 표현으로 소개됩니다. 부와 소유는 단순히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은혜 속에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관점에서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돈의 위험성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10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앉을 때,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강력한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 역시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충성을 양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즉, 성경적 관점에서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유혹을 내포한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은 '가난' 자체가 아니라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전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얻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기도 했습니다. "내가 잘못 믿은 건 아닐까? 하나님의 정말 살아 계실까?" 의심하며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모든 재산을 잃고 생명을 빼앗기는 순간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신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과 생명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얻는 것이 참된 부요함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봐야 한다" 아니다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만큼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이다" 둘 다 맞습니다.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축복? 저주?", 사실 이런 고민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돈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평가보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다면, 돈이 축복이든 유혹이든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인생을 사는 사람만이 돈의 이중성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돈을 선물로 감사히 받되, 그것이 주인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태도입니다.

신앙인의 길은 돈을 경멸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감사히 받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돈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돈은 중요하다"는 말과 "돈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운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_____

- 성경은 돈을 하나님의 축복이자 동시에 위험한 우상으로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돈이 축복으로 느껴진 경험과 유혹으로 다가온 경험은 각각 어떤 것이 있나요?

→ _____

-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돈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_____

- "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나요?

→ _____

-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적용은 무엇인가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돈 앞에서 늘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또 그 속에 마음을 빼앗길까 두렵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주님의 선물이자 동시에 우리를 유혹하는 강력한 힘임을 고백합니다. 원하옵기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신 재물을 욕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참된 부요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